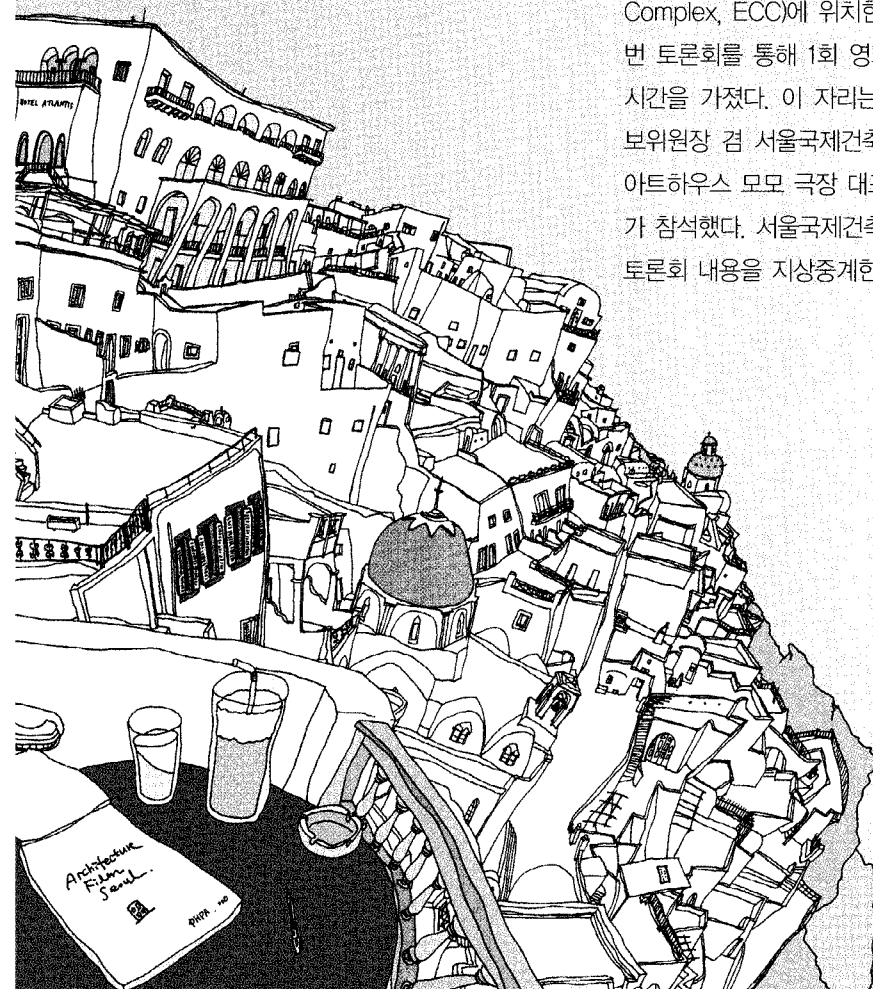


제2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를 위한 심포지엄 지상중계

The 2nd Seoul International Architecture Film Festival Symposium

지난 9월 7일(화) 오후 5시 대한건축사협회 3층 국제세미나실에서는 「제2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를 위한 토론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대한건축사협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TF팀은 지난해 영화제의 큰 성공을 바탕으로 제2회 영화제를 준비해왔다. 올해 영화제는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캠퍼스복합단지(Ewha Campus Complex, ECC)에 위치한 아트하우스 모모 극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영화제 TF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1회 영화제의 성과를 돌아보고, 지금까지 준비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는 신준규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김형수 대한건축사협회 문화홍보위원장 겸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집행위원장, 강병국 영화제 TF팀 위원 그리고 이광모 아트하우스 모모 극장 대표, 그리고 사회를 맡은 한선희 서울국제건축영화제 프로그래머가 참석했다. 서울국제건축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진지한 대화가 오고간 이날의 토론회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신준규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씨지에스 건축사무소



김형수 대한건축사협회 문화홍보위원장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집행위원장



강병국 서울국제건축영화제 TF팀 위원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우건축



이광모
아트하우스 모모 극장 대표



한선희
영화제 프로그래머

한선희 | 오늘 이 심포지엄은 지난해 제1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의 성과와 의미를 돌아보고 올해 영화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면 좋을지 의견을 듣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먼저 참석자를 소개하였다. 신춘규 대한건축사협회 이사님은 작년 열정적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영화제에 참석하고 지지를 해주셨다. 본 영화제 집행위원인 동우건축의 강병국 건축사, 프로그램 선정에 많이 관여해주시고 영화제가 성사되기까지 큰 역할을 해주셨다. 김형수 대한건축사협회 문화홍보위원장이자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집행위원장, 4년 이상 영화제 준비기간을 거쳐서 지난해 처음 영화제를 성사시켰고,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고 영화제를 이끌어오셨다. 영화계에서는 아광모 아트하우스 모모 대표님이 참석하셨다. 90년대 중반 영화사 백두대간을 설립하시고 동송시네마테크와 씨네큐브 광화문 등 극장을 운영하면서 세계적인 예술영화들을 국내 배급 확산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셨다. 또한 영화 <아름다운 시절>을 연출해 칸 영화제 감독주간에 초청되었고, 대중상 최우수 작품상 등 여러 상을 받으셨다. 먼저 김형수 위원장께서 지난해 영화제 성과와 의의를 설명하시겠다.

김형수 | 일단 본 영화제가 어떤 성격인지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지난해에는 그간 건축계에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까 실체를 보지 않고서 이야기를 하기 힘들었고, 설득을 하는데도 힘들었다. 하지만 지난해 영화제도 좋은 반응을 얻었고, 내부적으로 많은 설득을 거쳐 구체적인 실적을 보여주면서 커가는 영화제가 되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이 영화제는 건축은 예술인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했다. 건축을 좀 더 예술로서 자리매김 시키고, 문화적인 요소를 많이 부각시킴으로써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리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건축을 건설이나 부동산의 일부로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의 이미지를 문화예술적인 결과물로 계속 홍보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었다. 또한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건축사'란 호칭을 잘 모른다.

사실 이 영화제는 백조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설계업계가 어려운 마당에 왜 이런 행사를 굳이 하려고 하느냐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해나가지 않으면 결국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는 역설적인 이슈가 제기됐다. 차근차근 대국민 홍보를 해야지만 건축사협회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리가 중점을 두는 것은 매스커뮤니케이션에 전략적으로 노출을 하자는 것이다. 긍정적이고 친근한 이미지로 건축사의 개념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홍보쪽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 건축계에서는 건축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패널, 모형 등으로 전시를 하는 방법을 택해왔다. 건축사입장에서는 이해가 되고 재밌지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국민들이 재밌어서 직접 찾아와서 보는 케이스는 적은편이다. 시민건축학교, 건축문화학교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하는 패턴인데, 이것은 결국 대중적인 코드

에서는 벗어난 엘리트적인 건축사 시각에서 바라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다. 따라서 좀 더 대중적인 코드를 선택하려면 영화제가 가장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형식이라고 판단을 했다.

영화제 성공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수한 영화를 선정을 해서 상영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우리가 전 세계 최초로 건축영화제를 기획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전 세계에 건축영화제가 예닐곱 개 정도 되었다. 우리 영화제는 많은 편수를 상영하는게 아니라 소수의 좋은 영화를 상영하는 패턴을 택하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 영화제는 홍보대사를 유치함으로써 언론에 노출을 많이 시키고자 했다. 그리고 호스트 아키텍트 포럼(HAF)을 통해 건축사들의 강의를 번갈아가면서 진행했다. 또한 GV(관객과의 대화) 프로그램도 만들어 상영작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했다. 또 건축과를 졸업한 영화감독들을 모셔서 건축 교육을 받았던 것이 영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한 대담을 했다.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상영이 끝나고 나서 대부분의 관객들이 이탈하지 않을까 했는데, 참여도가 굉장히 높았다. 올해도 이런 포맷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작년 예상치 못한 결과가 하나 있다. 건축학과 교수님들이 수업을 대체해서 대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영화를 본 분들이 계셨다. 엄선한 영화들은 교육적으로도 효과가 좋았다. 따라서 영화제는 교육적인 프로그램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작년에는 영화제를 본격적으로 홍보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경인 및 수도권 지역에 정식으로 수업대체 프로그램으로 협조공문을 보낼 생각이다. 첫 회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높은 예매율, 관객 점유율을 얻었는데 올해는 관객들이 더 많이 오지 않을까 기대한다. 사실 영화관이 협소해서 올해 걱정이 좀 있다.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교육의 일부분을 이끌어간다는 점에서도 좋은 취지가 아닌가 싶다. 또한 작년에는 UCC공모전을 했다. 올해도 UCC공모전을 진행하려고 한다.

영화제 성과를 분석을 해보면, 언론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중요시 여겼다. 다양한 매체에 많이 노출되었고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았다. 인터넷 매체, 4대 일간지에도 많이 나왔다. 문화적으로 접근을 하니 홍보효과가 있었다. 어떤 언론들은 홍보대사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사가 나갔다. 올해는 더 많은 매체에 노출을 시키고자 다양한 계획을 잡고 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영화제를 소개했다. 현재 엄선해서 영화를 선정중이다. 우리는 일단 홍보에 목적을 둔 영화제고, 상업적이라기 보단 수준 높은 영화를 소개할 예정이다. 건축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인식을 확보하는데 이 영화제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선희 | 다음으로는 강병국 위원이 올해 영화제 준비 및 진행 상황을 소개해주시겠다.

강병국 | 작년에는 총 6편의 영화를 상영했다. 편수가 작다 보니까 좋게 표현하면 보석 같은 작품들만, 나쁘게 말하면 예산에 맞춰서 프

로그그램을 선정했다. 올해도 비슷한 규모로 상영되지 않을까 예상된다. 그때마다 영화제 TF팀에서 고민하는 게 국내 2편, 외국 5편 정도의 어떤 영화를 선택하면 어떨까 하는 점이다. 작년에 영화제에서 상영했던 것들은 전 세계 건축영화제에서 단골로 상영되는 프로그램들이었다. 사실 30편정도 상영하면 다양한 영화를 상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편수가 적어서 늘 아쉬움이 남는다.

본인은 가끔 뉴욕의 록펠러센터와 강남역의 삼성타운을 비교한다. 건축물이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록펠러센터에는 언제든지 세계적 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 다양한 문화 예술 행사가 열리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건축이 하는 역할이 아닌가. 우리 영화제 상영작에 대해서 '저게 무슨 건축영화인가'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뜻 깊은 영화를 상영하고, 영화제에 참여한 감독, 미술감독, 작가가 건축사들과 대화를 하며, 해당 작품이 왜 건축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것을 설명하고 관객들과 호흡하면 좋을 것 같다. 흔히 건축물과 일반 조형물의 차이는 무엇인가 질문을 많이 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은 건축도 사람에서 출발을 하는 것 아닌가. 영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최근 건축계에서는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논의되는 이슈가 환경 문제나 지속가능성 등이고, 해외 건축영화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자주 조명된다. 사실 건축이 제일 무지막지한 폐기물을 양산하는 집단이다.(웃음) 우리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는 영화도 상영해야 한다. 특히 올해 검토하고 있는 영화중에서 <비주얼 어쿠스틱스_Visual Acoustics>라는 작품이 있다. 줄리어스 솔먼이라는 유명한 건축 사진 작가에 대한 다큐멘터리다. 이처럼 세계적인 예술가와 건축사 등에 대한 다큐멘터리는 꾸준히 상영하고자 한다. 또한 세계 건축영화제에서 주목받은 작품 중 <콜하스 하우스라이프_Koolhaas Houselife>라는 작품이 있다. 렘 콜하스가 디자인한 보르도 하우스에서 일주일 동안 집안을 청소하는 가정부를 촬영한 영화다. 극중에서는 집에 비가 새고 난리도 아니다.(웃음) 영화는 왜 하필 비오는 날 촬영을 했느냐고 묻는 렘 콜하스의 말로 시작한다. 그런데 그다지 교육을 받지 못한 한 할머니가 등장해 몸을 사리면서 솔직한 얘기를 한다. 청소를 해야 하는데 콘센트를 찾지 못하겠다는 문제 등이다. 건축사와 그가 설계한 건축물을 대하는 일반 사용자들의 대화를 보여주는 영화다.

작년 영화제에 대한 관객들의 열기를 보면서, 관객들이 영화감독과 건축사의 대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 쪽에 아이디어를 짜내면 더욱 좋은 영화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건축 분야는 굉장히 폐쇄적인 집단이다. 그래서 올해는 저변을 좀 넓혀서 문화계의 더욱 다양한 분을 영화제에 모시면 좋지 않을까 한다. 그래픽 디자인이나 가구 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지명도 높은 분들을 모시고, 가까운 디자인분야에서부터 교류를 하면 관객들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다. 사실 예산이 작기 때문에 영화제 전체의 운신의 폭이 좁고, 그런 만큼 좋은 아이디어에 의존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한선희 | 신춘규 대한건축사협회 이사께서 지난해 영화제에 참석하신

소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다.

신춘규 | 김형수 위원장님이 고생을 많이 해서 영화제에 즐겁게 참석했다. 일단 이 영화제가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성황리에 끝났기 때문이다. 고무적인 것은 건축계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건축을 건설의 하위개념으로 봐서 부수적인 것으로 여겨왔는데 최근 많이 바뀌고 있다. 그런 가운데 영화를 통해 건축에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사실 작년에 고민을 많이 했다. 호스트 아키텍트 포럼(HAF)에서 발표를 하는데, 렘 콜하스에 대한 영화 다음에 일정이 잡혀서 엄청나게 고민을 했다.(웃음) 또 <마이 아키텍트>의 루이스 칸 같은 경우는 젊은 친구들이 잘 알지 못하는 거장이다. 그만큼 요즘 젊은이들은 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트렌드만 이해하는 모습들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HAF와 GV 시간이 무척 좋았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상영된 6편 영화는 <취화선>처럼 영화 장면 곳곳에 숨어있는 일상적인 건축의 요소들을 보여주거나, 프랭크 게리나 노먼 포스터의 다큐멘터리에서 보았던 굉장히 교육적인 얘기들, 또는 <마이 아키텍트>처럼 건축사의 삶 자체를 반영하는 영화 등이 골고루 있었던 것 같다. 사실 이 세 종류의 주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학생과 건축사보와 일반인이 모두 다르리라고 생각한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영화제 상영작을 통해서 건축사보들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흔히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경직된 사고를 영화제를 통해 풀어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다. 건축사들 스스로가 건축영화제를 통해서 건축을 건설에 허부적인 것으로 여기는 마인드를 바꿨으면 좋겠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많은 영역들과 다양하게 교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건축을 한 도시의 문화유산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영화제가 열리는 장소가 건축적인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사실 요즘 건축계 행사가 너무 분산이 돼 있다. 특정한 한 달을 정해서 건축축제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한국건축문화대상, 한국건축산업대전, 서울국제건축영화제를 하나로 집중해서 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영화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지 않겠나. 건축사들에 대한 교육의 장, 경직성을 풀어줄 수 있는 매개체로, 학생들에게는 교육의 매개체로 영화제가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올해도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한선희 | 마지막으로 이광모 대표께서 올해 영화제가 진행되는 극장인 이화여자대학교 아트하우스 모모를 소개하시겠다.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광모 | 우선, 건축영화제를 모모에서 하게 된 것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한다. 현재 본인은 시네마디지털서울영화제의 집행위원장



심포지엄 전경

으로 영화제를 꾸리고 있는데, 심포지엄을 듣다 보니 많은 점을 생각해 된다. 사실 진정성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영화제는 드물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기업홍보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건축영화제 집행위원회 측에서 상당히 고매한 정신을 가지고 아주 작지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아트하우스 모모 극장은 도미니크 페로가 이화여대 ECC 안에 극장 내부, 영사실 등을 모두 디자인했다. 심지어 스탠드 하나까지도 지정을 해서 준 상태에서 약간의 보완을 한 거다. 그래서 두 개의 상영관에서 영화를 각각 상영할 수도 있고, 한 영화를 모두 상영할 수도 있다. 시운드 면에 있어서도 아트하우스 모모는 뒤지지 않는다. 사실 극장이 이화여대 안에 있어서 접근성 면에서는 불리하지만, 위치적인 면에서 어려운 점을 시설의 측면에서 풀어보려고 생각하고, 따라서 어느 정도는 과잉투자한 극장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국내 멀티플렉스인 CGV, 메가박스 등은 소니 포터블 수준의 오디오라면, 모모는 하이엔드급 오디오가 설치된 영화관이다. 영화는 좋은 곳에서 관람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아트하우스 모모는 가장 정확하게 감독의 의도를 전달하고, 기술적으로 완벽한 최적의 조건을 갖춘 극장이다.

건축영화제에 제안하고 싶은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다. ECC 건물 가운데 벨리는 공연목적으로 애당초 설계가 돼 있었다. 그곳에서 야외상영을 하면 좋겠다. 계단에 편하게 웅기종기 앉고, 야외스크린을 하면 멋진 공연이 될 것이다. 그간 야외상영을 성사시키기 위해 저희가 대학 측에 끊임없이 어필을 해왔고, 언젠가 시도가 되면 정말 멋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올해가 될지 아니면 이후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 건축영화제를 하면서 야외상영을 시도한다면 참 좋은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다.

사실 모모는 사실 공간적으로 봤을 때, 영화제를 운영할 때 몇 가지 단점이 있다. 사무국을 위한 장소가 협소하고, 게스트리운지 역시 극장 앞에 위치한 카페를 별도로 활용하셔야 할 것이다. 다만 모모 앞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비교적 개방되어 있는 공간이 있다. 기본적으로 모모를 100% 활용하기 위해 저희와 협의를 하시면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다. 영화제는 축제이기도 하지만 교육, 사교의 장이기 때문에 시작 전부터 공간설계가 잘 되고 활용해야 될 것 같다.

지금 모모에서는 서울국제실현영화페스티벌을 하고 있다. 국내에는 부산영화제나 전주영화제 등 큰 영화제도 많지만, 그런 작은 영화제들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원을 해나가려 하고 있다. 작은 영화제들이 생존해야 문화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헝가리에서 한 작은 영화제이를 30년 동안 운영한 분의 소식을 들었는데,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분은 미술 부분을 특화시켜서 30년 동안 영화제를 해왔다. 아티스트를 초대하고 그들의 작품들을 극장 곳곳에 전시를 하면서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 사실 영화와 미술의 만남을 영화제를 통해서 만들면서 인적교류를 성사시키는 것을 보면서 흐뭇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존경스러웠다. 아직도 서울은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너무나 척박하다. 예술영화관에는 평균관객 수가 5~6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된 이유가 사실은 명분만 찾고 규모만 찾지, 자기색깔과 철학을 가진 행사는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건축영화제가 분명한 자기정체성을 가지면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백두대간이 일조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예정이다. 만나게 되어 반갑다. ■